



전국 최대 단일규모의 직영농장인 <소백양계>. 매일 50만 개 이상의 건강한 계란만을 담아내는 이곳에 60여 년간 한 길을 걸어온 사람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 양계의 산증인이라 말할 수 있는 손병원 대표(83). “계란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단언할 수 있는 명인을 만나 양계에 대한 조언을 들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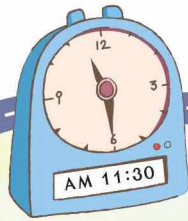
경북 영주시 안정면 <소백양계> 손병원 대표 건강이 담긴 계란 하나가 바로 내 운명!

글 김대진 사진 엄태헌



09:00 맑고 깨끗한 청정지역이라도 안심하지 않아

일명 활인(活人) 산이라 불리울 정도로 맑고 깨끗한 소백산 자락에 자리 잡은 <소백양계>는 닭을 사육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자랑하는 천혜의 청정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전체 면적 4만 평이 넘는 거대한 농장은 80만 수의 닭이 하루 50만 개의 계란을 생산하는 국내 몇 안 되는 대규모 양계단지이다. “매일 아침, 하루의 시작이 닭과 계란을 보는 일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변함없이 해온 제 일상이기도 합니다.” 넓은 양계단지에서 50여 명의 직원과 함께 닭의 외관을 살펴보는 손병원 대표, 병인의 아침은 늘 이렇게 닭의 건강(외관, 번 등)을 관찰하고 농장의 청결상태를 점검한다. 특히 닭의 번으로 건강은 물론, 사료 섭취 상태, 환경 상태 등을 알 수 있어, 매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 ‘신선한 계란은 건강한 닭에서 나온다.’는 믿음 아래, 닭의 사료를 식물성 사료로 개선하고, 목초액, 염산과 같은 영양분도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소백양계>의 계란은 일반계란보다 더 고소하고 영양가가 높다고 한다. 여기에 손 대표가 가장 강조하는 3가지가 있으니, 바로 통제, 예방, 백신이다. 천혜의 지역임에도 방심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대한 통제가 엄격하고, 소독 또한 정확한 일정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 수의사들과 함께 사료를 분석하여 백신에 대한 연구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닭은 사람과 달라서 질병이 오면 늦은 때가 많다. 오랜 세월, 직접 부딪치며 얻어낸 이 3가지가 있기에 지금의 손 대표와 <소백양계>가 있는 것이다.



11:30 보고 또 보니, 믿을 수밖에

닭과 계란의 건강상태를 보는 일이 끝나면 이어 이동하는 곳은 <소백양계>의 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 <늘꽃>이다.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은 이곳에서 더욱 정밀한 검사를 통해 등급판정을 받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등급판정을 거친 계란이 포장되어 전국에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손 대표는 '더 신선하고 안전하고 맛있는 계란'을 위해 정밀한 생산시스템 현장으로 들어간다. 농장에서의 검증이 끝난 계란은 이곳에서 다시 세척·건조·살균을 거쳐 선별작업에 들어가는데, 이때 파란·난중·혈란이라는 선별 단계를 거쳐야 등급판정을 받는 것이다. 아시아 최초로 자동 검란검출을 갖추고 있는 계란선별기(GP장)를 통해 정확한 판정, 바로 1등급 이상의 계란이 이곳에서 출하되고 있다. 그 덕분에 <소백양계>는 품질을 인정받아 식품회사인 풀무원과 주한미군에 생산된 계란을 공급하고 있으며, C와 크라운제과에는 액란(전란, 난황, 난백)을 납품하고 있다. 특히 국내 주둔하는 미군기지에 국내 양계의 계란이 공급된 일은 이번이 최초이다. "노력을 통해 얻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소백양계 전 직원이 원칙을 지켜가며 이뤄낸 일인 셈이죠." 처음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해 등급판정을 받은 일이 엊그제 같다는 손 대표. 2004년 처음 등급판정을 받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발전하는 현상'이 일어났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인연이 <소백양계>의 중요한 성공 양분이 되어줬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16:00 건강한 계란의 가치를 알기에

"지금까지 양계 일을 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도 부족함이 없는 계란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바친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죠." 30대 시절, 정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국민의 식탁에 건강한 계란을 올리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사업이 어느새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좋은 기회를 얻어 시작한 일에 감사함을 느끼며 앞만 보며 달려왔다. 매일 노력하는 사람에게서 기회가 다가온다고 전하는 손 대표. 특히 젊은 축산인에게 기회를 놓치지 말고 무조건 시작해보라는 조언을 건네주었다. 꾸준히 원하는 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성공의 시기가 다가올 것이라고. 늦은 오후가 되면 주요서류를 검토하면서 지기 프로젝트를 준비한다. 건강한 계란을 생산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소백양계>의 이전 목표였다면 이제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계란)를 준비하고 있다. 1992년 법인으로 <소백양계>를 설립했지만, 계란과 인연을 맺은 지는 자그마치 60여 년이다. 외골수 양계인 손병원 대표는 이제 양계의 큰 거목으로도 통하고 있다. 건강한 계란의 가치를 알기에 오늘도 보고 또 보아 신선한 계란을 제공하고 있다. ☺

